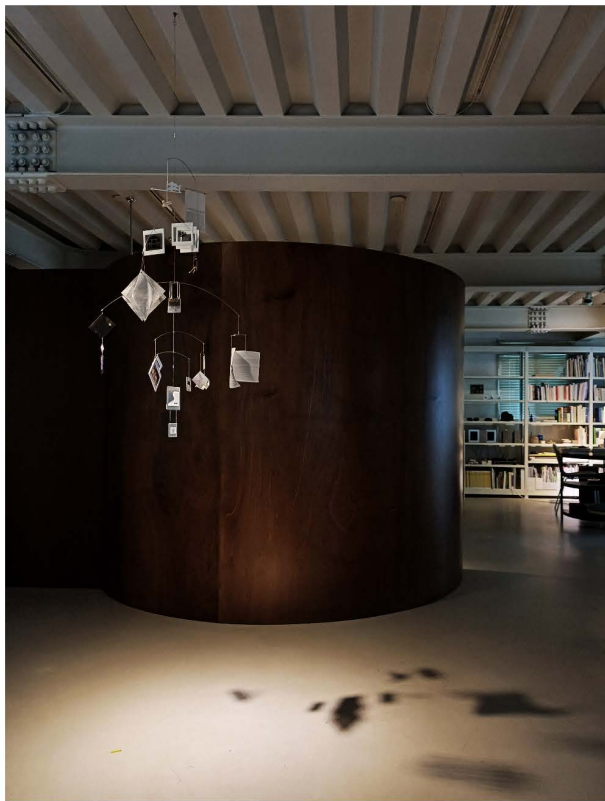


최후의 전시

The Last Exhibition



2024. 8. 20. ~

김창재, 안민혜, 임다울, 정세영

<최후의 전시>

2024년 8월 20일부터

만든 사람들: 김창재, 안민혜, 임다울, 정세영

도움 주신 분들: 로쿠스 솔루션, 배은아, 오종



2023년 6월,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로쿠스 솔루션에 모였다. 각자 다른 관심사를 갖고 다른 형태의 작업을 하는 작가와 기획자였지만, 그 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 보기로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전시'의 형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었다- 했다. 책은 '시스템아트 *Systems Art*'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주제 아래 우리의 모든 주제를 느슨하게 에둘러 묶은 책이었다. 한 권을 6개월 넘게 읽었으니 아주 열심히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책을 만족스럽게 읽으며 각자의 생각과 질문들을 나눴다.

책을 다 읽은 후,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모두의 질문을 그것에 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의 의견은 '전시'의 형태로 모이고 있었다. 그중 유일한 기획자인 내가 가진 질문은 "기후 위기 시대의 전시 형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였고, 나는 우리의 전시를 통해 전시 시스템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 실험해 보고 싶었다. 세 작가는 이 생각에 공감하며 지지해 주었고, 그렇게 모빌 형태를 지닌 <최후의 전시>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즉 공간, 작품, 설치, 운송 등의 것들과 전시에서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을 모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했다. 각각의 요소들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그렇게 요소들을 하나씩 바꾸었을 때 어떤 결괏값을 가질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작품을 실제로 제작하지는 않은 채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만을 이야기하면서 작품의 형식과 태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제스처로서의 오브제를 제작해 모빌에 달았다. 우리는 기획자와 작가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역할을 공유하며 함께 모빌을 제작했는데, 예컨대 전시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의논하였고, 작가들이 가진 또 다른 질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의 주제를 고수하되, 작품의 형식이나 오브제의 제작과 관련된 것은 상황에 맞춰 함께 결정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지지대에 세 개의 제스처와 세 개의 글이 달린 모빌을 제작했고, 모리스 블랑쇼의 책 제목 『최후의 인간』에 농담을 조금 섞어 <최후의 전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최후의 전시>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에는 넓은 장소와 운송, 설치, 엄청난 양의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고 싶은 작품이 무엇인지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음성 파일이나 드로잉으로 주고 받기도 하고, 며칠 동안 연이어 만나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그것들을 보고 들으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마치 내가 실제로 본 듯이 상상하고 묘사하여 글로 적었다. 그 글과 작가들이 모빌에 달아놓은 작은 오브제들을 연결한다면 <최후의 전시>를 관람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작품을 실제로 본 듯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물질과 공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제로 만든 것과 유사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일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건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중요했다.

우리는 관람의 형식도 바꿔보고자 했다. 멸균된 화이트 공간 대신 관람객의 사적인 생활 공간에서 전시를 보여주고, 여러 관람객이 그것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대신, 단 한 명의 관객에게 전시를 전달하고 그 관객이 자신의 공간에 설치하여 오랫동안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1~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관람객이 그다음 관람객에게 전시를 전달하여 다시 자신의 공간에 설치하여 관람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시. <최후의 전시>는 고정되지 않은 최소한의 공간을 점유하며 그렇게 끝없이 이어진다. 전시가 관람객에게 주는 어떤 효과가 공간, 물질, 시간이 어우러진 어떤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공간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며, 물질을 줄이고 이야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 값을 상쇄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을 사랑하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머지 세 작가의 질문이 무엇인지는 모빌에 달린 작가들의 제스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이의 말들이 담긴 글을 통해,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이 상상하게 될 그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이 이전의 전시 관람의 경험과 무엇이 다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매우 사적인 경험일 테니. 그래도 우리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작품과 당신의 감각에 의존하는 작품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른가? 숨을 멎게 하는 부피감과 물성, 눈을 매혹하는 형태와 색감, 진공상태인 듯 낮설게 다가오는 공간의 감촉이 예술의 가치인가? 아니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꼬리의 꼬리를 무는 생각, 나와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파고들게 하는 것이 예술의 가치인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최후의 전시>가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전시가 되길 바라본다.

<최후의 전시> 관람 신청 안내

- 2024년 8월 21일 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전시>는 김창재, 안민혜, 임다울, 정세영이 함께 만든 이동형 전시입니다. 모빌 형태를 한 전시는 관람을 신청하는 분들의 개인 공간에서 열릴 것이며, 관람자들은 최대 2주까지 전시를 대여하여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는 관람자들끼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종료날짜는 없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가 일주일 이내로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전시를 픽업하고 당신의 공간에 설치하여 전시를 관람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 당신의 공간에 길이 150cm, 지름 60cm 모빌을 걸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천장에 작은 나사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나사고리는 전시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후의 전시>는 관람 신청자들이 관리자가 정해진 순서대로 자신의 공간에 직접 설치하여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앞뒤 신청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서로에게 공유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에 대해 걱정되는 바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 양식을 작성할 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관람 기간이 다가오면 관리자는 전시가 있는 곳의 주소를 당신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직접 전시를 가지러 가야 합니다. 전시의 무게는 아주 가볍지만, 부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박스와 가방에 담겨있어 대중교통으로 운반이 가능하나,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운반시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 전시를 충분히 관람하신 후, 관리자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신청자의 연락처를 공유받게 될 겁니다. 그분과 약속을 잡고 전시를 직접 건네주시면 됩니다. 처음 받았던 그대로 전시를 박스와 가방에 넣어 전달해주세요. (관리자는 최대한 근거리의 분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할 것입니다. 당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시를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 관람기간이 느슨한만큼 원하시는 관람일자에 전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 관람자가 2주 이상 전시를 소유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때 관람자분들의 여유있는 마음과 서로간의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전시는 종료하지 않으며, 중복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느긋한 마음으로 전시를 기다려주세요.

! 더 좋은 관람을 위한 링크, 아래 클릭 !

-전시 서문 및 작품 묘사글-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3Ngw5oUUMMITmUG8qNtoiIQ9HK99D4N>

-전시 이미지-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3t30UV5liJ_9Qgmc5KxWt2EP5JvwvpsJ

-전시 설치 및 포장 안내 영상-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ctDAd3w8Tz8OeJWrMJ_QrdaUFuFH1UD